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287-296,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287

안과의원에서의 안경사 부족 원인에 대한 연구

김완기[1], 이은희[2*]
[1]안산대학교 의료정보과 교수, [2]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Lack of Opticians in the Ophthalmology Clinic

Wan-Kee Kim[1], Eun-Hee Lee[2*]
[1]Professor, Dept. of Medical Information, Ansan University
[2]Professor, Dept. of Visual Optics, Far East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안경사 인력부족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안경사 31명(남자 11명, 여자 20명)를 대상으로 자기기입법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검안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인력들이 9.7%나 되었다. 또한 기혼자일수록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유 업무인 검안업무를 않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급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안경사들이 결혼 등의 이유로 높은 급여를 위해 본인의 고유 영역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더 함으로써 급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이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과의원에서의 안경사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제어 : 안경사인력, 안과의료인력, 안경사부족, 안과안경사인력부족, 안경사급여, 안과근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dical institutions wanted to investigate what caused the shortage of opticians' manpower and suggest solu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1 opticians (11 male and 20 female)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a self-reporting method survey. Through the survey, basic information of the subjects and the inform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medical institution on dut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re were many people who had a license for optometrist but did not do optometrist work, and the married people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work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did not do optometrist work was higher. The cause of these problems was salary. Opticians who needed higher salaries for marriage and other reasons were able to increase their salaries by adding other tasks in their own areas. This unsatisfactory salary at medical institutions has led to a shortage of optometrists at ophthalmic clinics.

Key Words : Opticians' manpower, Ophthalmic medical manpower, Shortage of opticians, Shortage of opticians in ophthalmic clinic, Optician's salary, Ophthalmic work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Lee(ehlee@kdu.ac.kr)
Received June 25, 2020 Revised July 27,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서론

의료기관에는 역할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한다. 의료인인 의사(또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있으며. 안과에는 '의료기사등'에 해당하는 안경사가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종사하는 안경사와는 달리, 의사의 지도하에 법률에 정한 검안 활동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세계 각국의 안보건 시스템은 크게 프랑스. 독일의 대륙식과 영미식으로 나뉘어져있는데, 대륙식은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2원체제이며, 영미식은 안과의사와 검안사 그리고 조제안경사의 3각체제로 이루어져 있다[1].

특히 미국에서는 1924년 모든 주에서 안경사의 검안 활동이 허용된 이후,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검안학을 의학 전문 대학원과 동등한 4년제 과정으로 승격하여, 검안사가 눈의 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2-4]. 우리나라는 영미식과 달리 대륙식 체계를 받아들였기에 독자적인 검안사는 없으며, 1987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사로 하여금 검안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1,400여명의 안경사들이 배출되고 있다[6]. 그러나 의료전문인력 채용 포털 등에서 안경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안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연간 안경사가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안과의원에서의 인력부족 현상들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저자들은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과 진료시장의 확대정도와 안경사 배출 현황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안경사 현황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1.2 안경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7]에서 말하는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고객에게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고 맞추어 주며, 시력 보조구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자를 말한다. 대륙식의 2원화된 체제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가 검안과 안경조제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1].

1.2.1 안경사의 업무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2)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3)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4) 안경·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1.2.2 안경사 응시 자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8]에 따르면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하는 안경사의 응시자격은 다음[9]과 같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복수전공 불인정)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에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10.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3) 1988년 5월 28일 당시 의료기사법 부칙(제3949호, 1987.11.28.)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한 자에 한함.

Table 1. University with an optics department[10]

Variables	Education Period		Entrance Numbers	
	2-3 years	4 years	2-3 years	4 years
Total	30	12	1,281	435
Seoul	0	1	0	44
Busan	2	0	80	0
Daegu	3	0	142	0
Gwangju	2	0	80	0
Daejeon	1	1	64	40
Ulsan	1	0	40	0
Gyeonggi	3	2	142	96
Gangwon	1	2	35	60
Chungbuk	1	1	65	30
Chungnam	2	1	80	40
Jeonbuk	2	0	159	0
Jeonnam	4	1	115	30
Gyeongbuk	4	2	106	60
Gyeongnam	3	1	124	35
Jeju	1	0	50	0

1.2.3 대학에서의 안경사 배출현황

이완석 등[10]이 발표한 문헌에 의하면, 전국 안경사를 배출하는 안경광학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에 2,3년제 대학에 30개, 4년제 대학에 12개로 총 42개의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안경광학과의 전국 모집 정원은 1,716명으로 2,3년제 대학에 1,281명, 4년제 대학에 43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수도권에 있는 안경광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6개로 전국 42개 대학 중 14%에 불과한 점유율을 보였다. 입학정원을 보더라도 전체 1,716명 중 서울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은 282명으로 16%에 머물렀다.

1.3 안과 시장 현황

1.3.1 안과 진료 시장 변화

안과 진료시장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안과 관련 진료청구 횟수를 조사하였다. Fig. 1은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11]에 의한 안과 진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상병명: 눈 및 부속기의 질환)의 횟수 구성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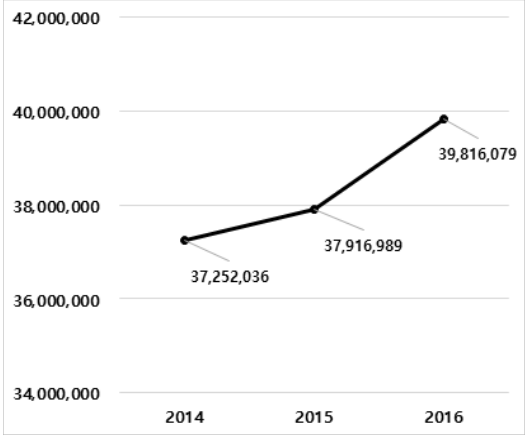

Fig. 1. Ophthalmological Outpatient Clinic Count[11]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안과 관련 외래 진료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안과 관련 외래 진료가 66만 건(1.8% 증가) 이상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90여만 건(5% 증가)이 증가하였다. 안과 진료 대부분이 외래 진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안과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의미한다.

Table 2. Status of annual license registration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technicians[11]

Variables	Doctor	Nurse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Radiological technician	Physical therapist	Optician
2011	104,397	282,656	44,929	31,472	41,023	34,791
2012	107,295	295,254	46,361	32,831	44,298	35,934
2013	109,563	307,797	48,055	35,032	47,710	37,225
2014	112,476	323,041	49,980	36,339	51,435	38,482
2015	116,045	338,629	52,081	38,592	55,000	39,914
2016	118,765	355,772	54,230	40,748	58,799	41,060
2017	121,638	374,990	56,238	42,736	62,586	42,297
Increasing rate	2.6%	4.8%	3.8%	5.2%	7.3%	3.3%

1.3.2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의 인력 변화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의 인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11].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11]에 의한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의 경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6%씩 인력이 증가하여 2017년에는 6년 전보다 17%인 17,241명의 인력이 증가하였다. 간호사는 연평균 4.8%(6년간 33%인 92,334명 증가), 임상병리사는 연평균 3.8%(6년간 25%인 11,309명 증가), 방사선사는 연평균 5.2%(6년간 36%인 11,264명 증가),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연평균 7.3%(6년간 53%인 21,563명 증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경사도 2017년에는 6년 전보다 22%인 7,506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1.3.3 안경사 연간 배출현황

안경사들의 연간 배출인원을 알기 위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고시의 연도별 합격자 수를 조사하였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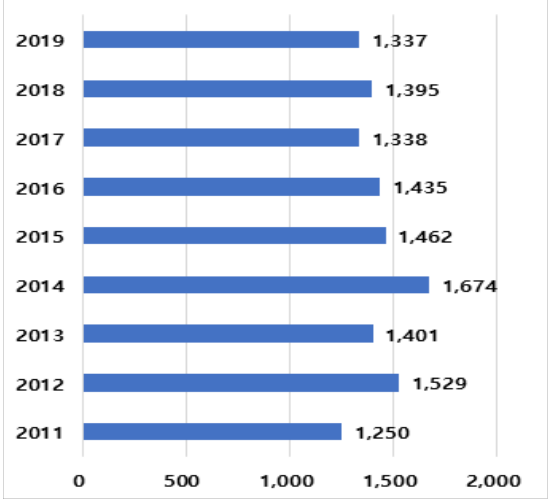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optician's license acquisitor[6]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시험을 통해 2011년에는 1,250명의 안경사가 배출되었고, 2012년에는 1,529명, 2013년 1,401명, 2014년 1,674년, 2015년 1,462명, 2016년 1,435명, 2017년 1,338명, 2018년 1,395명 그리고 2019년에는 1,337명이 배출되어 매년 평균 1,425명의 안경사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1.3.4 의료기관에서의 안경사 인력 변화

매년 국가고시에서 배출되는 안경사 인력에 비해 의료기관에서의 안경사 인력이 증가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12]를 보면 매년 100여명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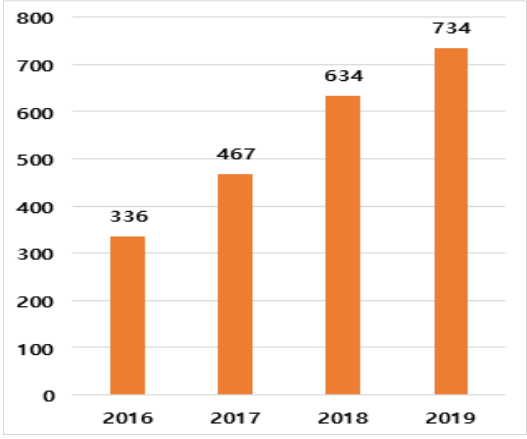

Fig. 3. Annual increase of opticians working for medical institutions[12]

1.3.5 지역별 의료기관의 안경사 인력 현황

지역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12]를 살펴보았다.

Table 3에 보듯이 안경사들은 지역별 의료기관 중 서울수도권에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634명 중 서울 수도권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279명으로 전체 인원의 44%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9년에는 734명 중에서 338명이 서울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보다 2% 증가 46%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에서의 안경사 인원 비중은 크게 높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안경사들의 인원이 감소하거나 인원 증가 없이 정체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세종과 전북, 전남 지역에서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안경사 인력이 1명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1명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Regional status of opticians working for medical institutions[12]

Variables	2018	2019	Increasing rate
Total	634	734	100
Seoul	145	172	27
Busan	84	92	8
Daegu	43	45	2
Incheon	39	50	11
Gwangju	45	47	2
Daejeon	32	37	5
Ulsan	7	9	2
Sejong	2	2	0
Gyeonggi	95	116	21
Gangwon	11	13	2
Chungbuk	18	21	3
Chungnam	28	30	2
Jeonbuk	16	16	0
Jeonnam	16	16	0
Gyeongbuk	15	14	-1
Gyeongnam	24	32	8
Jeju	14	22	8

1.3.6 지역별 의료기관의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의 요양기관현황 자료[12]에 의하면 2011년 대비 2019년 의료기관의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안과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병원, 일반병원과 의원 분야를 살펴본 결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4,471곳(연평균 559곳)의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수도권만 보더라도 8년간 2,642곳의 의료기관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30곳의 안과 관련 의료기관이 서울수도권에 증가하였다.

1.3.7 안과에 근무하는 평균 안경사 인원 현황

안과 한 곳당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평균 인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12]에 의한 안과를 진료과목으로 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종합병원, 일반병원, 일반의원의 수를 조사하였다. Table 5는 지역별로 안과를 진료과목으로 두는 의료기관의 수와 지역별 안경사 인원을 비교하여, 지역별로 안과 한 곳당 근무하는 안경사의 인원을 추정하였다[12]. 안과에서 근무하는 평균 안경사들의 인원은 안과 1곳당 3명 정도이었으며, 안경사 인력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던 인천지역은 평균 안경사 인력이 1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밖에 광주, 대전, 제주 등의 지역도 안과 한 곳당 평균 안경사 인원이 1명에 머물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

Table 4. Statu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medical institution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clinics) nationwide[12]

Variable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29,531	29,776	30,103	30,687	31,321	32,147	32,748	33,536	34,002
Seoul	7,632	7,685	7,774	7,922	8,076	8,282	8,433	8,653	8,794
Busan	2,239	2,232	2,270	2,316	2,356	2,395	2,446	2,508	2,542
Daegu	1,649	1,673	1,695	1,720	1,741	1,799	1,836	1,883	1,910
Incheon	1,425	1,439	1,452	1,474	1,518	1,553	1,575	1,610	1,634
Gwangju	926	936	954	985	990	1,001	1,011	1,033	1,050
Daejeon	1,008	1,043	1,043	1,061	1,074	1,095	1,112	1,127	1,137
Ulsan	580	578	583	598	621	641	642	653	658
Sejong	0	53	58	76	101	117	148	171	184
Gyeonggi	6,020	6,112	6,222	6,370	6,505	6,748	6,931	7,145	7,291
Gangwon	742	739	757	772	781	801	806	821	822
Chungbuk	840	828	826	845	867	894	898	917	930
Chungnam	1,095	1,046	1,052	1,065	1,088	1,097	1,113	1,120	1,127
Jeonbuk	1,155	1,162	1,168	1,173	1,200	1,217	1,235	1,243	1,245
Jeonnam	994	994	992	997	1,011	1,028	1,028	1,041	1,044
Gyeongbuk	1,273	1,277	1,267	1,294	1,329	1,343	1,358	1,378	1,382
Gyeongnam	1,633	1,646	1,646	1,663	1,688	1,743	1,751	1,784	1,802
Jeju	320	333	344	356	375	393	425	449	450

Table 5. Regional Ophthalmological Distribution and Average Number of Opticians[12]

Variables	Superior general hospital ophthalmology	General hospital ophthalmology	Hospital ophthalmology	Ophthalmic clinic	Total	Personnel in ophthalmology	Average personnel
Total	22	135	87	1,621	1,865	734	3
Seoul	7	24	16	437	484	172	3
Busan	1	11	5	128	145	92	2
Daegu	2	4	3	99	108	45	2
Incheon	2	6	2	64	74	50	1
Gwangju	0	5	3	40	48	47	1
Daejeon	1	5	4	44	54	37	1
Ulsan	0	3	2	32	37	9	4
Sejong	0	0	0	7	7	2	4
Gyeonggi	2	27	16	350	395	116	3
Gangwon	1	4	4	43	52	13	4
Chungbuk	1	5	3	38	47	21	2
Chungnam	1	6	4	53	64	30	2
Jeonbuk	2	4	3	59	68	16	4
Jeonnam	0	6	5	50	61	16	4
Gyeongbuk	0	14	5	66	85	14	6
Gyeongnam	2	8	12	90	112	32	4
Jeju	0	3	0	21	24	22	1

료기관에 근무 중인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11명(35.49%), 여자 20명(64.51%)가 참여하였다. 연령은 20대가 19명(61.2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0명(32.26%), 40대 이상이 2명(6.45%)이었다. 결혼 유형별로 보면 미혼자가 22명(70.97%), 기혼자 9명(29.03%)이었다(Table 6 참고).

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o(%)
Sex	male female	11(35.49%) 20(64.51%)
Age	20~29years 30~39years Over 40years	19(61.29%) 10(32.26%) 2(6.45%)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9(29.03%) 22(70.97%)

2.2 연구방법

2.2.1 설문조사

연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연령과 성별, 결혼상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근무경력, 업무내용, 급여 및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2.2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을 사용 분석하였다. 분석값은 빈도 및 분포, 기술통계분석결과를 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범주형변수는 X^2 검정을 연속형변수는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95% 신뢰구간으로 $p<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3.1 근무경력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들의 근무경력을 비교해 보았다.

Fig. 4에서 보듯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4명(45.2%)로 5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 17명(54.8%)보다 근소하게 적었다. 또한 안과에서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2명(38.7%)으로 5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 19명(61.3%) 보다 적었다. 현재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을 묻는 질문 또한 5년 이상 근무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명(41.9%)로 5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응답한 18명(58.1%)보다 적었다. 근무경력과 업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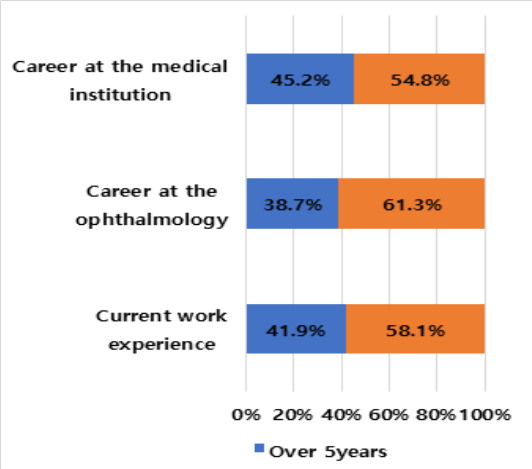

Fig. 4. Work experience comparison (as of 5 years)

3.2 담당업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묻고 있는 질문에서는 대부분(90.3%)의 응답자가 고유 업무 영역인 검안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로 3명(9.7%)은 검안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기타 행정업무 만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검안업무도 하지만 상담 업무도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명(16.1%), 접수수납 업무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명(6.5%),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명(3.2%)이 있었다(Fig.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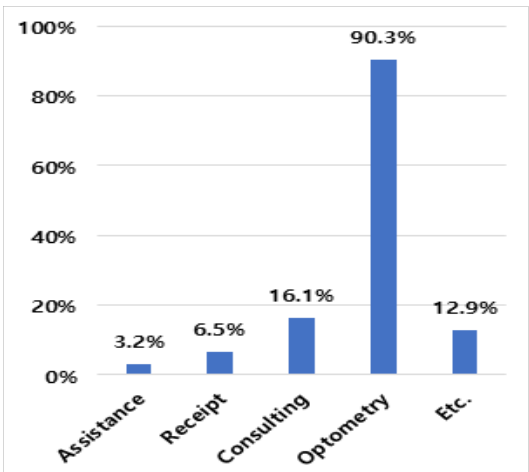

Fig. 5. Current Task (Duplicate Response)

3.3 결혼 유무에 따른 업무 만족도

결혼 유무에 따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미혼자의 경우 63.6%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기혼자의 경우는 33.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루었다(Fig. 6 참고). 그러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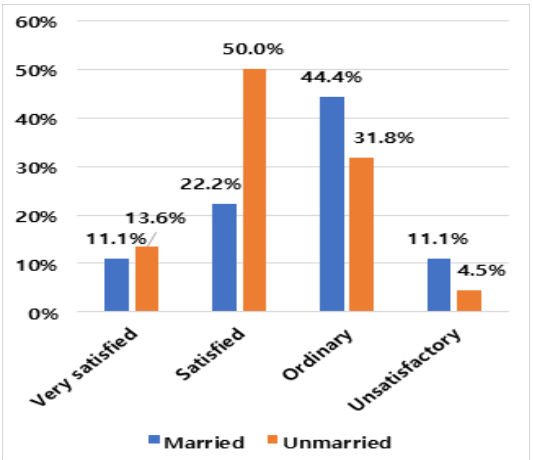

Fig. 6. Satisfaction with your current work based on marital status

3.4 담당업무와 급여와의 관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살펴보면(Fig. 7 참고), 진료보조업무와 접수수납 업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150만원-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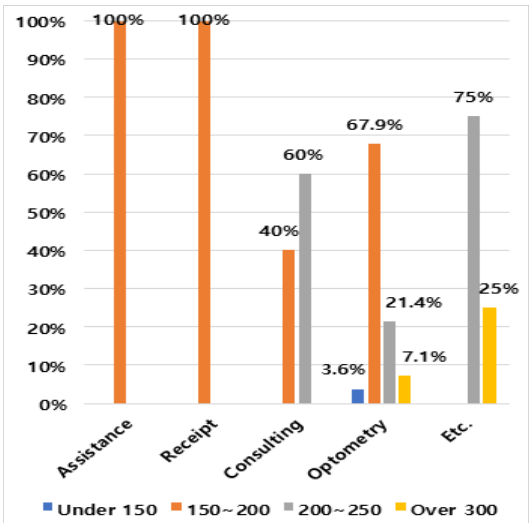

Fig. 7. Task based pay

그리고 안경사 고유 업무인 검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67.9%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200-250만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4%,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7.1%에 불과했다. 또한 1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6%나 되었다. 하지만 상담업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0-250만원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로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을 받는 다고 답하는 응답자가 40%로 뒤를 이었다. 기타 행정업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0-250만원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25%나 되었다(p=0.143).

3.5 근무경력과 업무와의 관계

Fig. 8은 근무경력 5년을 기준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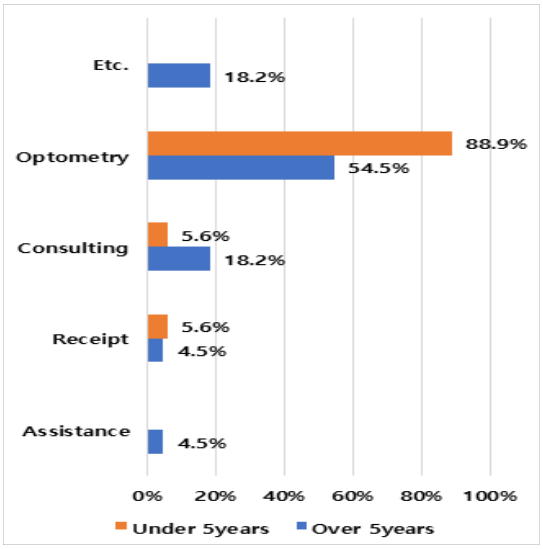

Fig. 8. Changes in task depending on the career

안경사 고유의 업무인 검안업무는 5년 미만의 경력자에게서 더 높은 점유율(100%)을 볼 수 있었고, 5년 이상의 경력자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78.6%의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상담업무와 기타 행정업무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경력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50%), 5년 이하의 경력자에게서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다소 적은 수치(11.8%)의 점유율을 보였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7).

4. 고찰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의 안경사 인력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안과 의료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11]에 따르면 안과 관련 외래진료 횟수는 2016년 기준으로 3,980여만 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5%(190여만 건) 증가한 수치로 안과 시장의 꾸준한 증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렇게 안과 진료시장이 커지는 만큼 안과 의료기관에서 안경사 인원의 증가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매년 전국 42개 대학의 안경광학과에서는 1,716명의 신입생들을 모집[10]하고 있으며, 연 평균 1,425명의 안경사들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새롭게 안경사 면허를 취득[6]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안경사 인원의 증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자료[12]를 살펴보면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인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여명의 안경사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롭게 배출되는 전체 안경사 인력 대비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이 의료기관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제도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선, 같은 의료기관 내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안경사의 인력부족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유의성은 찾지 못하였다. 같은 직장 내 다른 직원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7%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경사의 고유 업무인 검안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인력들이 9.7%나 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결혼 유무에 따른 근무형태를 보면 기혼자일수록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급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전재희 등[13]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4,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그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이직률이 낮다는 점에서 보듯이 급여와 근무 만족도에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고유 영역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더 함으로써 급여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 경력이 높은 직원일수록 고유 업무인 검안 업무에서 멀어진다는 조사결과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의료기관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직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 병원에서 장기간 일하는 안경사의 인원도 줄어들게 되었다(Fig. 4 참고).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안경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체계 확립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안경사 뿐만 아니라, 전체 안경업계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안경사들의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으로 임금 수준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항목이 2.36으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14]. 더구나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안경사들의 근속연수는 짧고, 이직률은 다른 직업에 비해 높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도 존재한다[15,16]. 또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안경사와 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안경사의 월급여액이 큰 차이가 없다는 2003년의 조사[17]와 2017년의 연구결과[18]도 있다. 따라서 낮은 임금 수준이 병.의원에서 안경사가 부족한 특유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안경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양자를 비교분석하지 않았으나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안경사에 관한 다양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FERENCES

[1] D. Y. Kim. (2012). A Historical Study on Development of Optometry. *arXiv preprint arXiv:1203.3842.*

[2] Goss David A. (1999). History of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Optometry Chronicled, Hindsight. *Journal of Optometry History,* 30-33.

[3] D. Y. Kim. (2014). Effects of Physics on Development of Optometry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Late 19th to the Mid 20th Century, *Korean J Med Hist, 23(2),* 343-372.
DOI : 10.13081/kjmh.2014.23.345

[4] S. H. Kim, J. H. Eom, S. S. Kang, M. J. Park, J. C. Shin & J. M. Seo. (2016). *A Study on the Policy Proposal for the Training and Discharge of Excellent Opticians.* Seoul :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5] Doopedia, Definition of Optician. [Online].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6603.

[6]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nnual national test acceptance rate. [Online]. www.kuksiwon.or.kr/Publicity/ExamStatistic.aspx?SiteGnb=5&SiteLnb=3.

[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Act. of Medical Technicians, etc. [Online]. www.law.go.kr/lsInfoP.do?lsiSeq=209737#0000.

[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Technicians, etc. Act. [Online]. www.law.go.kr/lsInfoP.do?lsiSeq=205639#0000.

[9]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Qualification for examination of optician. [Online]. 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ExamRight&JobCode=15&SiteGnb=8&SiteLnb=3.

[10] W. S. Lee & K. H. Ye. (2017). A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Optical Stores and Optometrists in Korea. *J. Korean Oph. Opt. Soc. 22(4),* 279-290.
DOI : 10.14479/jkoos.2017.22.4.279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48, 175, 176, 180, 181.

[1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Online]. www.kosis.kr.

[13] J. H. Jeon & Y. H. Yom. (2014). Role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Turnover Intens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302-312.
DOI : 10.11111/jkana.2014.20.3.302

[14] J. Y. Kwon, S. K. Kim & H. R. Noh. (2017).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caused by emotional labor of optometris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 317-326.
DOI : 10.14257/AJMAHS.2017.01.06

[15] K. H. Ye, S. J. Kim, K. U. Choi, K. H. Hong & J. H. Park. (2012). Study on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occupation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opticians. *Korean J Vis Sci, 14(3),* 163-172.

[16] K. H. Lee, J. Park, S. W. Choi, M. A. Han, J. H. Shin & S. Y. Ryu. (2019).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in Optometrists : Focusing on Gwangju and Jeollanam-do.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4(4),* 335-343.

[17] S. J. Chung & K. C. Mah. (2003). A survey on the job satisfaction of opticians in Seoul and Gyeonggi-do. *Korean J Vis Sci, 5(2),* 33-44.

[18] J. C. Byun & J. Y. Choi. (2017).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the Optician in Hospital : Focusing on Importance and Needs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22(4),* 361-376. DOI : 14479/jkoos.2017.22.4.361

김 완 기(Wan-Kee Kim) [정회원]

· 2019년 8월 : 극동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 석사)
· 2018년 8월 ~ 현재 : 안산대학교 의료정보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의료정보학
· E-Mail : kimwankee@ansan.ac.kr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안기능이상, 보건학
· E-Mail : lee0917@hanmail.net